

기상청 오락가락 일기예보 이유 있었네

돌발 변수 많고 예측력 떨어져 '헛방' 만

벌써 4주째 광주·전남지역 날씨에 보가 틀렸다. 서울지역은 6주째다. 부정확한 날씨예보는 휴가철을 맞은 시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도대체 왜 자꾸 날씨예보가 틀리는 걸까?



지난달 12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를 지나던 시민들이 우산을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자 손수건과 신문지 등으로 비를 가리고 있다. 전남 광주지방법기상청은 비 소식이 없다고 예측했다가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50mm까지 폭우가 내리 시민들이 낭패를 보기도 했다.

◇광주·전남 4주째, 서울 6주째 주말 예보 빗나가는 이유는 지난 1일 광주지방법기상청은 "토요일(2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 두차례 비가 내리겠다"며 "예상강수량은 최고 30mm"라고 예보했다.

하지만 광주는 이날 무더운 날씨와 함께 한 때 비가 조금 내렸지만 강수량이 측정될 정도는 아니었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홍도와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0.5~1.5mm가량의 비가 왔지만 예보와는 동떨어진 강수량이었다.

광주지상청은 지난달 19일에도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많게는 60mm까지 비가 내린다고 했지만, 대부분 지역이 10mm 안팎의 적은 비만 내렸다. 기상청은 또 20일 예상 강수량을 30~120mm까지 예보했지만 보성과 곡성 등 일부 지역에만 30mm 안팎의 비가 내렸을 뿐, 다른 지역은 거의 비가 오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12일 광주지상청은 주말과 휴일 날씨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며 비 소식이 없다고 예측했다가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50mm까지 폭우가 내리 시민들이 낭패를 보기도 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6주째 주말예보가 빗

해양성-대륙성 기후 맞닿아 날씨 경로 파악 어려워

강수예보 정확도도 여름엔 70~80%대로 '뚝' 떨어져

나갔다. 기상청은 지난 1일 예보를 통해 "금요일(1일) 밤부터 토요일(2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와 함께 50~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 강수량은 22mm에 그치는 등 6주째 예보가 틀렸다.

◇지정학적 위치상 날씨 예측 어려워= 이처럼 왜 자꾸 날씨 예보가 어긋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의 중위도에 위치한 탓에 찬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으며, 대륙과 해양 사이의 반도 국가라는 점에서 여름철 날씨 예측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또 우리나라가 편서풍대에 위치해 있어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어 서쪽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서해 바다가 있어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맞닿아 세력 싸움에 따라 날씨의 경로를 알아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지리학적 특성상 장소마다 기상상태가 달라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여름철 국지성 호우 예보 '난감'= 기상청의 강수예보 정확도는 봄·가을·겨울에

90% 가량이지만 여름엔 70~80%대로 자주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3년 85.1%에서 2005년에는 85.5%로 올라갔다가 2007년 85.0%로 다시 떨어졌다.

호우·대설 같은 기상특보 정확도도 2005년 66.1%에서 2006년 70.4%로 높아졌다가 2007년 66.1%로 원상 복귀했다.

특히 여름에는 장마전선이 세력 다툼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예상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를 뿌리기도 한다. 태풍이 오게 되면 바다 위를 지나가는 동안 태풍의 실측 자료를 얻기는 더욱 힘들다.

광주지방법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가 대륙 끝자락에 놓이는데 중국과 한반도 사이엔 여러 변수를 일으키는 서해가 끼여 있고 고위도 인구 밀도도 높아 여름철 예보가 힘든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국립공원 계곡 수질 좋다

97%가 양호... 휴가철 불법취사·계곡내 목욕 단속

국립공원내 계곡의 수질과 수(水)생태계 보전 상태가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피서철을 맞아 지리산 등 관내 16개 국립공원 내 주요 계곡 100개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 결과 97%가 '양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천 수질의 대표적인 지표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의 연평균 값은 모든 조사지점에서 지난 2004년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우 좋음' 등급(1mg/l 이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변성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미생물 군인 총 대장균군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 평균값이 100개 지점 중 98개 지점이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분변성 대장균군은 동일 기간에 100개 지점 중 97개 지점이 하천수질기준 '양호' 등급(100MPN/100ml이하)을 유지하고 있었

다. 지리산과 설악산, 내장산(백담)과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등은 수질과 분변성대장균군 조사에서 모두 '매우 좋음'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자원모니터링의 여부·저서생물·추동물 분야 조사결과, 국립공원의 주요 계곡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생물학적 기준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지표표준 금강모치, 버들치, 산천어와 열새우, 민하루살이, 광택날도래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탐방객에 의한 오물투기, 불법취사 및 야영, 계곡 내 목욕·수영행위 등 계곡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휴가철 주민들에게 오수처리시설 점검과 농경활동에 축분 및 비료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수질오염총량제 영산강·섬진강 확대 실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영산강·섬진강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 달부터 장성, 함평 등 7개 군에서 오염총량제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5년 광주, 나주, 순천 등 시 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 주남호 상류지역인 담양, 화순 등으로 확대된 오염총량제는 올해 8월부터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모든 시·군에서 실시된다.

오염총량제는 유역별 목표 수질을 설정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로, 2004년 1단계가 시작돼 2010년까지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목표수질

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2010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목표수질은 영산강 분류의 경우 B지점(장성, 함평) 5.6mg/L, C지점(영암) 5.2mg/L, D지점(장성, 함평, 무안) 5.2mg/L이며, 섬진강 분류는 D지점(곡성, 구례) 1.3mg/L, E지점(구례, 하동) 1.3mg/L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이며, 오염부하량 삭감에 필요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500부터 (8,9월에 한하여) 위 가격은 1인 식비를 기준으로 하며 10% 세금이 별도 부가됩니다. 대표전화: 062-228-8000 예약문의: 062-228-4711~2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건물들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도 - 금리도 대조적 대지 231㎡(70평) 5층 20억 - 충천도 대지 2307㎡(5층 18억) - 충천도 대지 20863㎡(4층 18억) - 충천도 대지 16550㎡(4층 23억) - 충천도 대지 13240㎡(3층 10억) - 광안동 구사원 대지 5371(183평) 4층 15억 - 남동향 한진 3번대 대지 29489㎡(4억) - 광안동구 3번대 대지 1190(360) 8억 - 화순읍 대지 390(118평) 6층 6억5천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건물: 대807/건1,352 보36억/월 3,000만원 매가 78억 - 대142/건200 보1억/월 1,000만원 매가 15억 5천만원 - 대260/건2,000 보20억/월 4,000만원 매가 75억 - 대200/건900 보30억/월 2,000만원 매가 75억 - 대300/건1,200 보4억/월 1,100만원 매가 24억 - 대125/건175 보1억/월 800만원 매가 15억5천

HOME CON HOME 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뒤 ☎ 062) 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仲介·開發·리서치 선인! 공인중개사 소장 정문호 - 추가적인 정보 제공 - 모의시뮬레이션 결과제출

금당부동산 (062)223-7400 한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네마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정가 70%이하 - 농성동 준주거200평 공시가 9억7천 매도6억4천